

“후배들아, 파리 올림픽 함께 가자”

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광주서 모교 잇따라 방문

북구 문산초·체육중·고 찾아 기쁨 나누고 학생들에 비법 전수
안산 “후배들 만나니 3관왕 실감…긍정적 마음으로 경기하길”

한국 스포츠 사상 첫 올림픽 양궁 3관왕에 오른 안산(20·광주여대)이 특별한 결음을 했다. 모교 광주 문산초등학교와 광주체육중·고등학교를 잇달아 방문, 은사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후배에게 양궁 비법을 전수했다.

양궁 국가대표 정장을 입은 안산은 자신의 꿈을 키운 북구 문산초등학교를 가장 먼저 찾았다. 박선혜 교장 등 교사와 후배 등 30여 명은 열렬한 박수와 함께 ‘축하해’, ‘우리 안산 최고’ 등을 외치며 환영했다.

안산은 박 교장과 당시 양궁부 감독이었던 최용상 교감, 노슬기 코치 등을 차례로 껴안으며 기쁨을 나눴다. 그는 올림픽 시계와 양궁 배지를 선물하며 모교에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다. 문산초는 3관왕을 기념해 특별 제작한 케이크와 꽃다발로 화답했다.

문산초는 안산의 재학시절 남양양궁부 창단을 추진했으나, ‘여학생에게 기회를 달라’는 안산과 부모의 정을 받아들여 활을 잡게 해준 학교다.

박선혜 교장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안산 덕분에 힘과 희망을 얻었다”면서 “학교의 자랑이자 광주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안산은 이어 처음 활을 잡았던 문산초 양궁장으로 걸음을 옮겨 후배들에게 활과 화살 다루는 법, 격발 자세 등을 직접 지도하고 격려했다.

안산의 사인을 받은 김재현(초 6년)양은 “심장이 터질 것 같다”면서 “평생 기억에 남을 가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광주체육중·고등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광주체고 강당에서는 20여 명의 후배와 교직원들이 “멋있어요”, “3관왕” 등 함성으로 안산을

반겼다.

김성남 광주체고 교장은 “오랫동안 깨지지 않을 ‘올림픽 3관왕 위업’은 별처럼 빛나면서 따라다닐 것이다. 모교의 명예를 빛내준 안산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은 “저를 가르쳐주신 모든 지도자분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이 자리에 있는 후배들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같이 운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교에서도 안산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다.

안산은 행사를 마친 뒤 후배들과 교직원들과 기념촬영의 시간을 가졌다. 양궁부 일부 후배들은 훈련용 표적지를 내밀며 사인을 요청했다. 안산은 아랑곳 않고 후배들의 이름과 별명을 적어주는 세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안산은 “후배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 3관왕이 이제야 실감이 난다”며 “집에서 밀린 잠을 자고 먹고 싶었던 어머니의 애호박 찌개 등을 먹었지만 별 느낌이 없었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양궁 후배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안산은 “잘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면 좋겠다”며 이어 “후배들도 긍정적인 멘탈을 갖는다면 좋은 선수가 될 것이다. 다음 올림픽은 후배들과 함께 나서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산은 모교 방문행사에 이어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해 장휘국 교육감에게 친필 사인한 태극문양 부채를 선물했고, 장 교육감은 합축선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안산은 4일 오전 10시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열리는 환영 행사에 참석한다.

/글·사진=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안산이 3일 문산초등학교에서 양궁부 후배에게 슈팅 자세를 설명해주고 있다.

“5·18 비하·왜곡 지만원 책 출판 안돼” 법원, 이의신청 기각

법원이 자신의 저서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지만원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심재현 재판장)는 지난달 30일 지만원씨가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법원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것에 관해 기각하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지난 2월 법원은 지씨의 도서가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및 개인 등 9명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광주 시민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 ‘해당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시 채권자 9명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 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지씨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법원은 3월 24일 심문 후 7월 30일 결정문을 채권자들에게 전달했다.

5·18기념재단 측은 “법원은 지만원의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5·18 단체와 개인 등)채권자들의 채무자(지만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기존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의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지만원이 부담하게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광주 동구, 초교 4곳 공사

광주시 동구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든다.

3일 동구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구내 초등학교 4곳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추진한다.

동구는 총사업비 7400만 원을 들여 옥곡초등학교·계림초등학교·남초등학교·산수초등학교 등에 사업을 추진한다.

옥곡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계림초, 남초, 산수초에는 노후된 안전울타리를 디자인이 개선된 안전울타리로 교체설치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통해 더욱 강력하게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북구, 인권작품 공모전 개최

그림·시·에세이 등 내달 10일까지

광주시 북구가 인권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1년 북구 인권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인권작품 공모전은 ‘일상 속 인권존중과 인권가치 확산’을 주제로 인권인식을 개선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인권그림(그림·사진·포스터) ▲인권스토리(사·에세이) 등 2개 분야이며 아동·청소년부, 일반부로 구분된다. 지역이나 연령 제한 없이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3인 이내 공동출품도 가능하다.

작품 접수는 북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오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인권교육과 이메일(natal200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오는 9월 중 북구인권위원회가 인권지향성, 창의성, 홍보 및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24편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북구청장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30만원 등 총 400만 원 규모의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상작을 인권교육, 인권캠페인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는게 북구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대병원, 글로벌 우수 척추내시경수술 센터 지정

조선대병원 척추센터 최소침습클리닉이 독일의 척추내시경 전문 회사 ‘RIWOspine’으로부터 글로벌 우수 척추내시경수술 센터로 지정됐다.

‘RIWOspine’은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료업체로 지난 20년간 척추내시경수술을 선도해 오고 있으며, 표준화된 수술 기법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 의료 기구의 자체 개발 및 임상검증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4K 내시경 카메라를 비롯한 영상장비와 고주파 치료기 등의 의료 기구를 자체 개발·생산하여 전세계로 보급함과 동시에 주요 국가에 척추 내시경 센터를 운영하여 많은 의사들을 교육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강남성모병원·경희대병원에 이어 국내에서는 4번째로 조선대병원이 우수 척추내시경수술 센터로 지정됐다.

더불어 신경외과 주창일 교수가 국내에서 4번째로 국제 자문의사로 임명되면서 향후 척추내시경의 개발과 연구를 RIWOspine 회사와 공동으로 진행하게 됐다.

척추센터 최소침습클리닉장 주창일(신경외과) 교수는 “이번 우수 척추내시경수술 센터 지정으로 척추내시경수술 분야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쿠루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물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